

## 양심이 곧 청렴이다

저는 청렴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고의로 법을 어겨가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살림 형편은 여의치가 않았고, 학교 또한 꿈도 꾸지 못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야 버티면 그만이지만 굶주림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굶주림과 사투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던 중 서울에서 고향 선배가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 무작정 상경하여 도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장에서 화장실 청소, 도장 바닥 청소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생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했기에 눈치만 보며 남의 입맛에 맞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만 20살이 되던 해에 삶의 도피처로 월남 파병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굶주려 죽으나 전쟁터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니 차라리 남의 나라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월남 파병 기간도 어떻게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지내다 보니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 후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이삿짐센터 일을 하는데 새벽에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면 돈을 좀 더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새벽에 하느냐고 묻자, 더이상 묻지 말고 할 수 있는지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일도 없는데 웬 떡이나 싶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불도 켜지 않은 채 옮기는 것입니다. 수상하다 싶어 물어보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을 켤 수가 없다며 웃돈을 더 줄 테니 옮겨달라고 합니다. 돈을 더 준다니 알았다고 하고 기분 좋게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밤손님의 짐을 내가 도와준 격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 반성문을 쓰고 훈방 조치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밀바탕에는 도덕이니 청렴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굶주림이라는 원초적인 생사의 문제와 돈과 이익과 같은 것들과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은퇴하고 늘그막에 푼돈이라도 벌어 볼 요량으로 이것저것 찾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작한 공공근로를 하면서부터는 가슴에 남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그전에 하시던 분이 급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자리가 비었다며 내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여고 후문에서 ‘스쿨존 지킴이’로서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등굣길에서 차량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하고,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약 2시간가량은 학교 후문 주변과 운동장 쓰레기 줍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쉬운 일인데다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될 것 같아 매우 흡족했습니다.

출근 첫날, 대충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학교 후문은  모양으로 코너가 각이 진 좁은 골목길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고사하고 횡단보도도 없거니와 중앙선도 없었습니다. 내심 불안하겠다 싶었지만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거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교 시간이 되니 차들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차와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각이 진 후문 근처로 모여드는데 등교를 도우려고 주차한 차들 때문에 반대편 차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자 자칫 학생들이 위협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을 늙은 노인네가 경광등 하나만 들고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학생들만 데리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운전자들끼리 알아서 지나가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잡한 등교 시간이 끝나고, 후문 주변과 운동장 주변의 쓰레기 줍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등굣길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몇 차례 목격해서인지 쉬엄 쉬엄하고 싶었습니다.

‘첫날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대충 쓰레기를 줍고 학교 정원을 둘러보며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다가와 “할아버지 더운데 힘드시죠?” 하며 우유 하나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꼭 손녀딸처럼 생긴데다 착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금까지 일을 하면 반드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는데, 공공근로는 대가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스쿨존 지킴이’ 나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대충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욱 불편해지고, 등곳길에 오가며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손녀 같은 학생들의 인사말을 들을 때면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눈에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수한 아이들에게 내 양심의 검은 모습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행동과는 반대로 주어진 일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혼잡한 교통질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운전이야 40년간 이 샷짐센터를 하면서 좁은 골목이며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단지에서도 용달차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실력이나 운전자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이 서툰 주부들에게는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주차 등을 도와주고, 급한 사람들이 있어도 순차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줍기 시간에는 유리 조각, 못 또는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보이면 무조건 주웠습니다.

사실 저는 청렴이라는 고귀한 말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들은 힘들어도 돈맛에 하고 양심에 어긋나도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 속에서는 저의 행동들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나 봅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문제는, 미안하지만 어른들입니다. 등곳길에서 경광봉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고 차들이 지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 한 분이 불쑥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위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불쑥 지나가는 어른을 제가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의나 공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높을 것입니다. 청렴에 대한 기대치는 높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쿨존 지킴이’ 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무리 경광봉이든 법이든 그 무엇으로 막아놓아도, 어른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그냥 덩달아 따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어른부터 모범을 보이고 행동하면 그 사회는 자연스레 청렴해 질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옛말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어렵게 이해됩니다. 대신 청렴을 양심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좀 더 쉽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청렴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청렴을 양심이라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쿨존 지킴이’ 를 통해 느낀 것은 바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니, 일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지는 느낌까지 듭니다. 저는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 일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렴이라는 덕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시면 그것이 바로 청렴한 삶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들은 저절로 청렴하고 양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